

社說

# 국가 부도 획책하는 좌파 정치인들



한반도 테라포밍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  
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27일에는 ‘8세부터 매월 20만 원0세부터 18세까지 10만 원 지급, 월세 1만 원 기본주택 제공,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 등도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부루마블(Blue Marble) 게임’의 장난감 돈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 세상에서는 아무도 일을 안 해도 될지 모른다.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나누어 주면 되니 말이다.

2021년 대선 과정에서는 ‘무한경제이론’을 펼치기도 했다. 한 사람이 10만 원을 주고 호텔의 객실을 예약하면 호텔은 가구점에서 침대를 구입하게 되고, 가구점 주인은 수입이 발생하자 차킨을 사먹고, 차킨 집 사장은 그 돈으로 호텔에서 빌린 10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 맨 처음 사람이 호텔 예약 취소 후 환불받더라도 지역 경제가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그의 경제관은 이런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2024년의 민주당의 공약은 무한경제이론 기반의 2021년 공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유혹한다. 그래서 기가 찰 지경이다.

그간의 좌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계획적으로 국가 부도를 획책하는 것 같다. 이미 문재인정부는 불과 5년 사이에 국가의 부채를 400조 원이나 늘려 놓았다. 인당 25만 원씩 ‘배급’하면 즉각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까? 단돈 25만 원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를 합산하면 무려 13조 원이나 된다. 1회성 포퓰리즘보다 13조 원을 미래 지향적 신기술 개발 또는 제조 기업들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지 않을까? 우파와 좌파의 인식은 여기에서 갈린다.

참으로 우려되는 것은 좌파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부채를 감당해야 할 주 계층이 오히려 ‘무지성적으로’ 이들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국민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G7을 바라보는 국가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이러한 비이성적 집단사고는 전교조예에 의한 세뇌, 좌파가 장악한 영화계와 언론계 그리고 정치인들의 선동이 낳은 결과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이재

명 대표가 유세 현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공)에 대한 ‘충성’을 표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세력은 사실 중공이다. 중공에 의한 우리 핵심기술 침탈과 역사왜곡 및 문화 찬탈은 지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핵심기술 유출 사례 552건·피해 규모 100조 원 이상으로 분석했는데 주변의 대부분은 중공이다. 아예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계도까지 훔쳐 간 것이다.

이미 문재인은 시진핑의 ‘중공몽’에 동참하고 싶다고 선언했고, 그 뒤를 잇는 이재명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면 말도 무슨 상관인 것처럼 중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어떠한 짓을 벌이더라도 그저 ‘세세(謝罪고맙다)’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중공의 충성 개입을 요청하는 신호

만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은 전 세계의 영웅’이라며 ‘이재명 띄우기’에 한창이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범야권의 한 축으로 당명부터 코미디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형’ 전 국립의 교원장은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정작 자신의 아들은 15세 때 미국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의 패턴은 항상 똑같다. 국민을 선동하되 뒤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자들인 것이다.

국가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비겁한 지식인들, 사익만 추구하는 무책임한 정치인들, 포퓰리즘에 매몰된 국민이 많아질 때 무너진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가 왜 저 지경이 되었는가?’ 2020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명의 ‘세세’는 중공 정치 개입 요청의 신호탄 국가부도 막아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 확산 필요 보수 우파 정체성 재확립 없이는 국가 미래 없다

일 뿐만 아니라 6·25 남침 전쟁 당시 우리 를 구원해 준 16개 참전국들에 대한 도발이다. 물론 그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은 은인(恩人) 맥아더 장군과 미국을 점령군으로 인식하는 뼈뺀 세력관·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대만해협이 어떤 곳인가? 우리 물동량의 40%가 통과하는 곳이다. 자칫 전쟁이 발생한다면 하루 손실액만 4452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곳은 오직 중공뿐이다. 중공 언론에서는 ‘따침내 한국에 정신이 멀쩡한 인물이 나타났다’며 ‘한국 정치인조차 중국에 대한 오

년 물가상승률이 3000%에 육박하고 5년간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다.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정치를 일삼는 좌파가 정권을 장악하면 국민의 삶은 반드시 처참해진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진정하면 보수 우파 인사들을 배척하고 정치적 경험과 경륜도 무시한 채 전향한 운동권·여성·호남 인사·법조인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 결국 현재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82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종종(從中)·종북(從北)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국가가 몰락하는 꼴을 지켜볼 것인가?

### 스카이&땅

러시아가 모스크바 외곽 크로쿠스 시청 공연장에서 관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지른 테러범 4명을 공개했다. 이들의 모습에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러시아군이 네 명의 용의자를 구타하고 전기 충격기와 망치 등을 이용해 고문하는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그중 한명은 귀가 잘린 듯한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당국은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143명, 부상자는 36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민과 전 세계가 보게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아반직 테러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테러범에 대한 잔혹한 고문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러시아 당국, 아니 푸틴은 왜 전혀 없이 처참한 고문의 흔적을 대중에게 공개했을까? 일각에서는 테러를 막지 못한 푸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한

### 푸틴의 제 발등 찍기



다. 정치인들이 본능적으로 작동시키는 정치적 선택으로 보는 것이다.

푸틴의 정치적 선택은 이번 사건과 우크라이나를 연결 짓고 미국을 비난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은 러시아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푸틴으로서는 재집권하는데 도움이 됐다. 전쟁 중에 지도자를 교체하는 모험을 하려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푸틴은 테러에 대한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씌워 국민이 전의를 더욱 불태우도록 하고 싶었을 터이다.

테러가 발생하자마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테러범들이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 조직원이라며 배후를 자처했다. 그런데 푸틴은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주하려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몰아가려 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강력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중요한 건 푸틴이 테러 발생 2주 전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ISIS-K 움직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망을 갖고 감시해 온 미국은 이번 달 초 모스크바가 테러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첩보를 러시아에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국민을 겁주고 크레믈린을 ‘위협’한다며 이 경고를 무시했다. 재집권에 눈이 어두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박선욱 논설실장

## ‘첨단 바이오산업 200조 시대’ R&D 투자가 관건

이제 우리도 첨단 바이오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분야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게 됐다. 우선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로 조성하는 등 구체적 세부 계획도 밝혀졌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연구개발(R&D)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다.

첨단 바이오란 기존 바이오 기술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분야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앞다퉈 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2600조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반도체 시장이 약 78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전 세계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매달리는 것으로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다.

윤 대통령은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 선도 기지로 조성해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 수준의 ‘K바이오 스퀘어’로 혁신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학·연구기관·바이오 기업, 그리고 법률·금융·회계 등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을 모은 단지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하버드·MIT·터프츠 등 명문대가 포진해 새로운 연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바이오 테크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다. 우리도 K바이오 스퀘어가 조성되면 약 2조1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만9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다. 이는 AI 활용 신약 개발·디지털 치료제·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올해 7월 발표된 구체적인 계획에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바이오 산업은 AI와 함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 통한다. 올해 2월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총(시가 총액)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30여 년 이끌어 온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을 주목했다. 아마존을 제치고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구글)의 뒤를 잇게 된 엔비디아의 현재의 위치는 특히 시대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기회를 포착하는 그의 독보적인 능력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충북 오송에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첨단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AI와 함께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최선봉에 있는 엔비디아 수장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매년 반도체

체 점유율과 이고 인프라도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생명 과학의 발전은 비연속적이었다”면서 자신에게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바꾸는 기술’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젠슨 황이 암시한 것처럼 앞으로 인류의 관심이 향할 트렌드는 특히 생명을 다루는 과학과 공학의 경계가 모호해 지거나 결합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연구자가 바이오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밝힌 것은 그런 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글로벌 6대 바이오 강국 도약’으로 가려면 R&D 능력이 관건임을 잊어서 안 된다. 첨단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

## 여성 인력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 좌우한다

우리 사회에 양성평등이 이뤄졌다는 건 착각이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고 사법시험·공무원 시험·대학입시 등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20% 정도 낮다.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다.

‘신 남존여비’를 알게 하는 또 다른 지표가 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9개국의 직장 내 여성 차별 수준을 평가하는 ‘유리천장(Glass-ceiling) 지수’에서 한국이 12번째 부동의 꼴찌를 기록했다.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유리천장 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성별 간 임금 격차·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토대로 산출된다. 한국 지표는 대부분 바닥권이다. 남녀 소득격차는 31.2%로, 작년엔 이어 올

용율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녀가 성년 이후인 40대 들어서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지만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보인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성 당사자의 일을 통한 자아 성장과 역량 개발·경제적 측면에서의 ‘기회비용 및 소득’의 단절 등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측면의 손실과 부담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과 인력 손실, 초저출생·초고령화로 대표되는 불균형 사회 촉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여성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예컨대 취업률 비교를 보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취업률은 65%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67%보다는

### OECD ‘유리천장 지수’ 12번째 부동의 꼴찌 남녀 소득격차 31.2%… 기업 여성이사 16.3% 40대 고용률 증가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20%p 하락했다. 주목되는 바는 성별 취업률 차이가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남성 졸업자 취업률은 67.1%, 여성 졸업자는 63.1%로 4.0%p 차이가 났다. 여성에 대한 ‘취업 차별’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남존여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21년 기준 20.5%p였다. 이는 튀르키예(41.4%p)·멕시코(34.9%p)·칠레(21.2%p)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격차다. OECD 평균은 16.4%p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점에 놓여 있다. 정부와 기업 등은 정책 입안 시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데 힘써야만 생산 인력 확보는 물론 현실적인 저출생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 또한 직시하길 당부한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고